

목차와 책의 특징

소개서문

1. 이 책에서 쓰인 독창적인 개념과 용어들 그리고 번역기법들 소개

Legend

- 1) Visualization 번역법
- 2) 자유번역
- 3) 영어식 대응법(외국어(원어 source language)식 대응법)
- 4) 동기주의, 결과주의
- 5) 비교적 인식¹⁾(비교언어학적 개념)
- 6) MSmd Principle
- 7) 군이론(Group Theory)
- 8) 일원론 이원론(군이론의 어머니 이론)
- 9) 가상, 상호수식 등

2. 각각의 산발적 원칙(하의어 hyponorm, hyponym)들을 큰 범주(상의어: 상위범주 hypernorm, hypercategory)로 분류함

- 1) 몇 번 몇번은 무슨 품사 내지는 무슨 번역법으로 분류
- 2) 명사부분 등 품사로 분류하는 방법과 다른 원칙과 인식의 틀속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구분
- 3) 기존의 산발적으로 제시한 틀을 깨지 않고, 몇 번 몇 번은 무슨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별도로 제시하는 것도 차별화되는 길(방법)일 수 있다.

1) 관계속의 지식

I. 품사전성 번역법

1. 형용사↔부사 2. 동사↔명사 3. 부사↔서술어(동사)(특히 서술적 부사일 경우)
4. 형용사(문장수식형용사의 경우 특히)↔서술어(동사)
5. 명사(형용사이나 명사상당어구도 포함)↔부사
6. 조동사↔동사, 부사, 형용사
7. 명사↔형용사
8. 형용사↔동격

II. 물주구문 번역법: 첨가번역법

III. 의문사포함 번역법(간접의문문 등)

1. 명사를 첨가하여(상황별, 접속사별 적절한 명사)번역
2. 원래대로 번역 1. 2. 간에 어떻게 더 좋은지 상황에 따라, 원문의 의미에 따라 결정

IV. 일관성

V. 문체를 고려

VI. 문장을 재단(scissor)하라.

길 때는 자르고, 짧을 때는 붙인다

VII. 태변환(수동태와 능동태간, 명령문과 평서문간 등)

IX. 전치사번역

X. 한정적용법과 서술적 용법

XI. 단어의 뜻과 어휘선택문제

XII. 서술적 번역(구를 절로)

XIII. Visualization 번역법

XIV. 양보의 의미번역

any, every, all, 최상급 등이 포함된 전체, 최고의 개념일 때

XV. 화법변환(직접화법↔간접화법:두 의미)

XVI. 문체와 어법의 차이를 고려(언어의 속성에 따른)

XVII. 해석과 번역의 차이점(서문에 도입할 내용들)

XVIII. 명사와 대명사 (생략과 호칭 등)

1. 동어반복회피, 2. 대명사생략 3. 동족목적어, 동의어회피 표현 등 4.

XIX. of번역

XX. 비논리적인 글→논리적인 글

XXI. 번역과 수학은 다르다. 37번

XXII. 전치형용구

XXIII. Native Speaker와 동일한 인식구조와 서술순서를 지향: 정보연결구개념 40번

→ 원문중심

XXIV. 지시관계에 대해

1.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풀어서 제시
2. Bedeutung, Sinn, Bezeichnung: Sense, Reference, Meaning의 차이

XXV. 삽입과 생략

1. 동사부연설명구를 넣는다. (48번)
2. 명사 등 첨가(50)
3. 중복된 어구 회피, 생략→간결화

XXVI. 기호번역법

1. 괄호번역
2. 인용부호번역: 따옴표(“ ”), 쌍따옴표(“ ”)
3. 하이픈
4. 콜론(:), 세미콜론(;)번역
- 5.

XXVII. 수량

1. 수자 세기
2. 단수와 복수
대표단수, 대표복수 처리법
3. more than... 번역

XXVIII. only 번역 두 가지

XXIX. "...것"이라는 말 회피

XXX. 동격번역

1. 동격번역법

2. 동격 vs. 형용구

XXXI.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한 정보로

1. 분사구문↔완전한 절로 바꾸기

2. 지시대명사→절(Clause)로 승화시키기

XXXII. 접속사절(종속절), 절 등의 접속사 의미등 원의미를 탈피하는 번역
생각의 전환

XXXIII. 한국어의 묘미 및 뛰어난 특성을 살려라.

→목적어중심(Target-language based)

XXXIV. 어순을 바꾸라. (주어↔보어 등)

1. 주어와 서술어(보어)를 바꾸기

2. 접속사절(종속절)의 정보제시순서를 바꾸기

3. 전치사가 사용되었을 때: 전치사구가 종속절역할

XXXV. 문장의 각 성분의 역할 및 전체와의 조화: 부분과 전체의 조화

XXXVI. 언어적 특성, 차이를 인식하라.

1. 영어와 한국어의 미묘한 차이 및 관계

2. 목적어 중심

1) 논리를 바꾸라.

3. 원문 중심

XXXVII. 번역과 관련기법과의 관계

1. 통역과 번역의 차이

2. 번역과 영작과의 관련성과 시너지(synergy)효과

XXXVIII. 시제

XXXIX. 내용과 표현과의 관계: 표현을 바꾸고 내용을 일치시킴

XXXX. 추상적인것↔구체적인 것

1. extension↔intension

XXXXI. 비교급과 점층법, 점강법

XXXXIII. 강조구문, 특수구문 번역

XXXXIV. 문법과 번역의 관계

XXXXV. 최종단계: 자유번역(제2의 창작)²⁾

And 등 등위접속사 번역법: 자유번역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심한 변형³⁾이 가해짐

cf. 영어식⁴⁾ 대응법

Bibliography (번역강의와 관련하여 예문을 발췌한 책자들 그리고 기타 참고 책자들)

5)

1. Mein Kampf(영어 원문) by Adolf Hitler

2. The Prince by Machiavelli

3. 영어 작문(원문 영어)

4. 각종 물리학, 수학관련 과학기술 서적

5. 기타 뉴스저널, editorial, 경제전문저널 등 인터넷에서 발췌한 산 영어예문들

기타 등등

2) 자유번역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와의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이다. 그걸 구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나 굳이 분류상 구분 짓더라도 기준이 필요하다.

3) 사상의 변환

4) 일반화하면 ‘원문(Source Language)식 대응법’

5) 분야로 나누면 과학기술분야, 문학, 정치학, 철학 등 분야와 어학, 시사저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동사를 명사처럼(동사를 명사화) 번역

그 중 하나 ---->정동사를 주어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동사가 반드시 주어가 되란 법은 없다)

Ex) -----was characterized by, mean ----: --의 특징(characteristic)은, --의 의미(meaning)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게 되는 우리말상의 동사부분(서술어 부분)은 적당한 어휘를 첨가한다.

예문 Mein Kampf 소개문 中:

To some extent, *Mein Kampf's* contemporary ability to offend results from its continued unfortunate⁶⁾ ability to inspire. The "bible of National Socialism" has found new generations of⁷⁾ devotees in neo-Nazis, haters, racists, and Third Reich enthusiasts.

초역: 어느 정도는 ‘나의 투쟁’의 현대적 공격적인 능력은 지속적인 불행한 선동하는 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소위 국가사회주의의 경전이라고 하는 본 저서는 인 나치주의자들,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및 제3제국 추종자들이라는 인 세대를 찾기에 이른다.

번역: 예1) 얼마간, 현대에서 바라본 ‘나의 투쟁’이 위험한 힘을 갖게된 결과⁸⁾는 불행히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사상적⁹⁾ 영향력 때문이다. 이른 바 ‘국가사회주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으로 인하여 인 세대로 이루어진 인나치추종자,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및 제3제국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문2 The Prince 中

Those who strive to obtain the good graces of a prince are accustomed to come before him with such things as they hold precious, or in which they

6) 이 것은 번역에서 형용사-->부사어 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

7) 앞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전치형용구번역을 응용할 수 있다.

8) 자연스럽게 옮기기 위해서는 ‘원인’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9) 첨가번역: 앞으로 나올 내용

see him take most delight: whence one often¹⁰⁾ sees horses, arms, cloth of gold, precious stones, and similar ornaments presented to princes, worthy of their greatness.

표역: 직역하다보면 오역(원뜻과 다른)도 포함될 수 있음, 고로 번역에서 이 원의미 오류가 어떻게 수정 변화되는 지를 주목하기 바람 (아래 밑줄 친 부분은 단어의 여러 뜻 중에서 잘못된 어휘선택(직역의 문제점 중 하나)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임

군주의 품은 덕목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자기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나 군주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바치는 것에 익숙해 있다.

즉 여기에는 말, 무기 금필(금 옷감), 보석 및 군주의 위대함의 가치를 위하여 군주들에게 존경되는 비슷한 장식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번역: 군주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가진 선입견(습관) 중에는 자신들에게 귀한 물건들, 바꾸어 말하면(or를 풀어서 번역) 군주가 가장 기뻐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바치는 게 있다.

즉, 이 중에는 말이나 무기, 금사(金絲)¹¹⁾ 옷감, 보석¹²⁾, 혹은¹³⁾ 군주의 위대함에 가치를 더하는(위대한 품위(위엄)에 부족하지 않은) 상납용 장식품들도 종종 볼 수 있다.

10) 참고로, 빈도부사관련 품사전성 번역도 고려할 수 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

11) 한자를 쓰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한글이나 한자나 하는 논란도 있어서 쉽게 결론 맺을 수는 없지만, 한국역시 한자문화권이므로 적절히 간결성을 고려해 한자를 섞는 것도 좋다. 간결해 진다면..

12) (굳이 원문에 따라 복수로 할 필요는 없다. 번역의 응통성, 대표단수도 있으니까)

13) (그리고라고 꼭 할 필요없다.)

2. 명사를 동사처럼 번역¹⁴⁾

Ex1) On the thoughtful study----철저한(심도 있는) 연구를 함(V)에 있어서

Ex2) in the promulgation of -- : --를 공표할 시(문장의 주체가 의미상의 주어)=when it promulgates ---; of 이하가 바로 동사(명사가 동사가 될 때)의 목적어와 상응하는 것, 의미상으로나 무엇으로나, 목적어 역할(전명사구에서)이라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해, 명사에서는 목적어의 의미, 역할을 가진 성분이 그 뒤에 바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of 등의 연결 조사, 도움성분으로 연결시킨 것

Ex3) in setting regulations(의미상 주어는 위원회; commission) 조례를 제정할 때 <-----when it sets regulations

기타 완전한 예문들

발췌: Mein Kampf

Chapter IV Munich (p.127)

To my amazement¹⁵⁾ I could not help seeing everywhere that even in otherwise well-informed circles there was not the slightest glimmer of knowledge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Habsburg monarchy.

초역: 놀랍게도 어디에서나 심지어 다른 분야에서는 학식이 높은 집단에서조차 합스부르크왕가의 성격에 대한 미미한 지식도 없다는 사실을 볼 수 밖

14) (전치사구가 부사어구이니까, 그냥 그안의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를 동사적으로 하여 여음구를 집어넣어(동사표현 붙여) 하는 것이라 하는 게 더 엄밀한(다른 각도에서 본) 내용, 본질)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히, 동사적 의미를 가진 명사, 혹은 동사의 명사꼴(동명사가 아닌 명사) 동명사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그런 경우를 이런 번역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아닌 경우라도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과 억지(?)가 요구된다. 이런 경우가 자연스레 되는 경우도 다.

동사의 명사꼴과 명사와의 차이: 얼음(명사) vs. 얼음(동사의 명사형)

물이 얼음은 자연의 이치이다. (명사형)

얼음은 냉동실에 보관된다. (명사)

15) 이 경우는 전치사구를 부사어, 부사구로 본다면 부사(어)를 동사로 바꾸는 번역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에 없었다.

번역: 어디를 보더라도¹⁶⁾ 다른 분야에는 박식할 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징과 관련한 희미한 기억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 나를 놀랍게 하였다.

P.9 The prince

He who would attack that state from the outside must have the utmost caution; as long as the prince resides there it can only be wrested from him with the greatest difficulty¹⁷⁾.

초역: 외부로부터 국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극도의 조심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주가 그안에 머물고 있는 한,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그로부터 나라를 뺏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번역: 외부에서 나라를 공격하고자한다면(사람 생략), 엄청난 주의가 필요한데, 군주국일 경우에¹⁸⁾ 그에게서 나라를 뺏는다는 것은 최고의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¹⁹⁾ 없기 때문이다.

더 동사화하여 번역하면: 군주에게서 나라를 뺏는 것은 최고로 어렵기 때문이다.

16) could not help -ing everywhere를 간결하게 부사구로 처리

17) 번역에서 어떤 문장성분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떤 품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중점이 되는(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지며, 그게 문장(단)의 효과와 의미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로, 번역작가의 의도에 따라 굳이 이런 공식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원의미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할 때는 직역과 비슷한 순서와 문체로 (어휘만 바꾸어) 할 수도 있다. 원칙은 없다.

18) 의미 중심 의역

19) only의 수식관계, 의미를 달리 본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only는 유일한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지(직역에서처럼 그 방법 뿐이란 것), 번역에서처럼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뿐이라는 것인지 수식관계를 달리 볼 수 있다.

Mein Kampf p.102 (Pan-Germans and parliament)

At the time of the emergence of the Pan-German movement the situation of the Germans in Austria was already desperate. From year to year the parliament had increasingly become an institution for the slow destruction of the German people.

초역: 범 게르만 운동이 출현할 당시에는, 오스트리아내 독일인의 처지는 이미 처절(절박)하였다.

번역: 당시 이미 오스트리아에 사는 독일인들의 처지가 절박한 상황에, 범 게르만운동이 출범하였다. 의회는 해가 갈수록 변질된 기구로 전락하여, 점차로 독일민족을 말살시키는 데²⁰⁾ 기여²¹⁾하였다.

20) 동사화 함 destruct

21) for를 이렇게 풀어서 번역

3. 불주구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번역기술인, When이나 If등을 첨가하여, 조건, 시간중속절처럼 명사(종종 주어)를 번역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도 역시 절(clause)은 동사가 대표함으로 명사를 동사처럼 번역하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Mein Kampf

P.103

And the Pan-German movement did not possess these broad masses; thus no course remained open but to go into parliament.

It would be a mistake to believe that this decision was the result of long soul torments, or even meditations; no, no other idea entered their heads.

Participation in this absurdity was only the sediment resulting from general, unclear conceptions regarding the significance and effect of such a participation in an institution which had in principle been recognized as false.

초역: 범 게르만 운동은 이런 광범위한 대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로 의회로 진입하는 것 외에는 어떤 통로(과정)도 열려있지 않았다.

이 결정이 오랜 정신적 고통이나 심지어 고뇌(명상)의 산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일 것이다. 아니, 어떤 다른 생각도 그들 머리에는 없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것에 참여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거짓으로 인정된 기구, 제도에 참여하는 중요성과 결과와 관련된 일반적이고 불확실한 개념들에서 발생된 양금이었다.

번역: 범 게르만운동이라 하더라도²²⁾ 이런²³⁾ 대중은 존재하지 않았다.

22) 문맥상 적절히 양보로 옮김 although...절로 왜냐하면 이름이 범게르만 이니까, 딱 들어맞음

23) 이 것도 앞 뒤 상황에 맞춰 뭘 지 밝힐 수 있거나 그게 낫다 싶으면 풀어서 쓰는 게

고로, 의회로의 진출 말고는 다른 통로가 열려있지 않았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장구한 정신적 고뇌나 숙고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즉, 그들에게 다른 사상따위는 절대 안중에 없었다.

이런 무모함에 빠지게 되었다면²⁴⁾ 원칙적으로 오류라고 인정된 제도로 결국²⁵⁾, 심각하게 빠지게 된 것과 관련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 남긴 흔적일 뿐이다.

좋은, 지시관계 번역에서 다룰 예정

24) if 조건절로 옮김

25) effect의 의미를 명사로 살려 완전히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모든 성분을 그릴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결국이라고 약화시켰다. 효과라는 말을 써서 번역할 수도 있다.